



국립극장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은 '목향'. (사진제공=국립극장)

이제는 문화시민

선진예술교육현장 탐방

<7> 국립극장

국립창극단·무용단·관현악단·발레단 등 1년치 공연 사전 공개 '레퍼토리 시즌제' '옛 것' 편견 깨고 적벽가 등 전석 매진 생애주기 공연예술체험·창극 아카데미 어린이·2030 젊은층도 폭발적 반응



전통예술아카데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전경.

지난해 국립극장(극장장 안호상) 임직원들은 어느 해보다 바쁜 시간을 보냈다. 특별한 일정이 없는 주말에는 중장년 등산객들에게 전단지 나눠주기 위해 북한산과 관악산을 찾았다. 국립극장이 2014~2015년 레퍼토리 시즌제로 기획한 창극 '적벽가', '흥부가', '마당놀이'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다. 국악은 '고리타분하다' '어렵다'라는 편견 때문에 '호불호'가 갈려 티켓판매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서울시내에서 열리는 수많은 인문학 강좌도 국립극장 직원들이 문이 닫도록 드나들었던 곳이다. 아무래도 수강생의 상당수가 50~60대이다보니 '옛 것'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였다. 임직원들의 '정성'이 통했는지 2015년 레퍼토리 시즌제의 '적벽가' 스티커 창극 '장화홍련', '목향', 그리스 비극을 장극화한 '메디아' '단테의 신곡'은 예상을 깨고 전석매진을 기록해 공연계열을 놀라게 했다.

민간단체도 아닌 국립극장이 티켓 판매에 팔을 걷고 나선 건 '가만히 앉아서' 관객을 기다리다가는 객석이 텅 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국악은 클래식이나 뮤지컬과 같은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변이 넓지 않은 만큼 '발로 뛰지 않으면' 관객유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악의 대중화는 국립극장의 생존과 직결된 과제다. 지난해 역대 최고의 객석점유율(92%)과 관객수(14만5178명)를 기록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지만 서울시 인구 1천만명과 비교해 보면 고작 1% 안팎에 불과한 수치다. 국악을 즐기는 애호가도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다. 이렇다 보니 매년 기획공연 때마다 대극장인 해오름극장(1563석) 객석을 채우는 것도 버거운 상황이다.

이를 위해 국립극장이 내놓은 대책은 수준높은 레퍼토리 시즌제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레퍼토리 시즌제는 전속단체인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국립관현악단 이외에 국립발레단·국립합창단이 참여해 1년치 공연 라인업을 사전 공개하고 티켓을 판매하는 시스템.

관객 입장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작품을 '찜' 관계 확을 미리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국립극장 측에선 1년에 수십 여편의 공연을 무대에 올려야 하는 만큼 단원들의 기량과 작품성이 요구되는 부담스런 작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2년 부임한 안호상 극장장은 단원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강화하는 한편 시대의 흐름에 변화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득시키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지난해 국립극장은 시즌제 도입이전인 2011~2012년에 비해 작품수가 33편에서 52편, 전속단체 공연수는 9편에서 26편, 관람객 수는 6만 3000명에서 14만5178명으로 늘어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뭐니뭐니해도 국립극장의 '색깔을 보여주는 건 전통을 소재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국악과 소리, 무용 등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통예술 아카데미'와 '창극 아카데미', '인문학 특강', '여우특', '오감오락 음악여행단', '꿈나라 토요문화학교', '예술가 클럽', '외국인 국악아카데미' 등을 선보였다.

이 가운데 '전통예술 아카데미'(매년 3월~11월)는 국악에 대한 저변확대와 중장년층의 여가생활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난이도에 따라 초·중·고급 3단계로 운영한다. 경기민요, 태평무, 소고춤, 한량무, 사물놀이, 판소리 등으로 나눠 전속단체 단원들과 외부 인사를 강사진으로 위촉해 실기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거문고와 아쟁, 대금 등의 악기를 연주하는 애호가들의 모임인 '아마추어 국악 관현악단'은 20~70대까지의 단원 52명이 일주일에 2번씩 모여 기량을 닦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창극 아카데미'는 국립극장과 안숙선 명창이 손을 잡고 기획한 창극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다. 안 명창을 비롯한 최고의 강사들에게 연극·한국무용·판소리 등 전통예술을 마치 즐거운 놀이처럼 배우며 우리의 말과 소리, 몸짓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다. 국립극장이 지난해 참가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만족도 설문조사에서 98점(100점 만점)을 기록할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

국립극장 홍보팀의이주미씨는 "어린이들의 전통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생애주기별 공연예술체험 교육 '꿈나라 토요문화학교'는 매년 수백여 명이 신청할 만큼 인기가 높다"면서 "특히 수업시간에 진행되는 수강생 학부모들의 참관 수업은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물론 자녀와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50년 창설된 국립극장은 6·25 전쟁의 참화를 딛고 지난 60여 년 동안 전통예술의 현대적 재창조와 세계화에 앞장서왔다. 대극장인 해오름극장과 소극장인 달오름극장, 공연 성격에 따라 무대가 바뀌는 별오름극장, 원형 야외무대인 하늘극장 등으로 이루어졌다. 해오름극장은 1563석 규모로 국내 극장 가운데 객석간격이 가장 넓다. 달오름극장은 427석, 별오름극장 80~100석, 하늘극장 600석 규모이다.

/서울=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취재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국립극장 무용론' 타파 안호상 극장장 “전통예술의 현대감각 재창조 국립극장이 확 젊어졌어요”



“레퍼토리 시즌제는 무용론에 직면해 있던 국립극장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내놓은 비장의 카드입니다. 취임할 당시만 해도 공연계에는 국립극장의 존재감을 느낄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어요.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이나 뮤지컬은 좋아하면서도 전통예술은 '올드'하다며 외면하기 때문이지요. 현대적 감각에 맞춘 전통예술의 재창조를 위해서 '젊은 극장'로의 변신이 시급했습니다.”

지난 2012년 1월 취임한 안호상(57) 극장장에게 지난 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다. '국립'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색깔없는 공연장으로 전락한 국립극장을 '핫플레이스'로 탈바꿈시키기까지 숨겨진 시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것이 당시 국립극장은 뮤지컬이나 클래식과 같은 서양예술에 밀리고 마케팅과 기획력으로 경쟁력을 갖춘 민간공연장들에게 치인 신세였던 것. 취임과 동시에 내놓은 레퍼토리 시즌제는 그의 오랜 현장경험과 노하우를 보여주는 야심작이었다. 다른 민간 단체에서는 찾기 힘든 제작극장으로서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전속단체인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 등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전속단체를 거느리고 있다는 건 공연장으로서의 남들이 부러워 할 만한 자산입니다. 외부 작품에 의존하지 않고 언제든지 작품을 무대에 올릴 수 있는 '콘텐츠'를 갖고 있다는 의미죠. 가량 1개의 단체가 1년에 작품 3~5개만 제작해도 수십 여편을 '돌릴 수 있거든요. 때문에 단원들의 기량과 연출이 어우러지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특히 그가 주목했던 건 젊은 관객들을 겨냥한 레퍼토리였다. 스티커 창극을 표방한 '장화홍련'이나 웃음코드를 녹인 '배비장'이 대표적인 예로 매년 전석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20~30대 젊은 층으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

“시즌제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관객들의 반응과 요구를 읽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중 공연을 하게 되면 어떤 작품을 관객들이 좋아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데다 시행착오를 통해 완성도를 높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속단체 단원들 스스로 연습량을 늘리고 기량을 연마하는 등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서울=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의 식사업무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 예약 및 문의 | 061-392-2114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연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